

외국인 노동자 안센 백신 자율접종

전북도, 1만2000명분 백신 확보... 30세 이상 접종 동의 미등록 외국인·대민업무종사자·도서지역 주민 등 대상

전북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안센 백신 자율접종을 시행한다.

도는 2천2천명분 안센 백신을 확보해 시·군별 방역상황과 안센 백신 특성(1회 접종 완료)을 고려,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곤란한 대상을 중심으로 자율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율접종 추진 대상군은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대민업무종사자, ▲도서지역 주민, ▲접종희망자 등이다.

다만, 시·군별 대상군이 상이하므로 접종 희망지역 보건소 콜센터에 문의해 접종을 신청해야 한다.

접종 대상은 시·군별 자율접종 추진 대상군 중 30세 이상으로 안센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이다.

다만, 1차 접종자 및 기 대상군 중 미예약·미접종자, 노숙자는 제외되며, 백신물량 소진시 접종은 종료된다.

전북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1회만 접종하는 안센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최근 군산, 남원, 김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외국인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며,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도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미등록 외국인(30세 미만,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보건소나 접종센터에서 접

종 받을 수 있다.

등록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접종 받는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서운 현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 참여"라며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강 국장은 "전북도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

전북도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축산물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등 300여 곳이 대상이며,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병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 축산물 위생사항 전반에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점검할 예정이며, 아울러 해당업체의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시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 소비량이 많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격에 적합한지 수거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무주군의회는 30일 열린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한반도의 영구 평화 정착을 위해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30일 열린 제2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전체제는 교전군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전후행위를 중지해 전쟁을 종식시키기에 부족한 합의"라며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은 결의문을 대표발의하며 "전쟁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남북정상회담과 공동합의

를 도출하는 등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그 동안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남북 대화와 교류가 끊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번영의 약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종전선언에 대해 "잠재적 전쟁이 가능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간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한국전쟁이 종식됐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쟁우려를 불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장치"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주군의회는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화와 협력 재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촉구 ▲전쟁당사자인 남, 북, 미, 중의 정전협정 공식 종료와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 촉구 ▲국제사회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추석 성묘 온라인으로 대신해주세요"

전북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적극 권장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운영 추모객 분산 유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전북도가 추석 연휴기간 성묘 자제와 온라인 비대면 성묘를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도는 30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현재의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올 추석에도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상시 운영 중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 15774129.go.kr, www.ehaneul.go.kr)은 유가족이 직접 차례상, 분향, 헌화, 사진첩 등 온라인 추모관을 꾸밀 수 있으며, 가족, 친지들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중 봉안시설은 성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도는 봉안시설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 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4㎡당 1명으로 밀집도 조절 가능한 인원만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

모 시간도 제한해 추모객을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봉안당 등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제례실과 가족 휴게실은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가급적 성묘를 자제하되 부득이 공원묘지 등 성묘를 할 경우, 추석 연휴기간(9.18~9.22)을 피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성묘 시에는 안내요원의 요구(발열체크, 방문자 기록, 마스크 착용)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 자제 및 2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묘역 내 이동 시에는 신체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나눠 동선을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성묘객 등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입장객기 등 출입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했다.

김현욱 도 노인복지과장은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추석 명절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온라인 성묘 등으로 추모객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전북도, 지급대상자 확정 11만7000농어가 70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전북도는 도내 농어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8월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이었다던 농기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1만7,000농어가, 706억 원의 지급액을 확정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또한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06억원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

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실라농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시행 결과 10만7,000농가에 약 64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훼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의로 부여해 살만한 농어촌 만들기과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